

## ◇심장이식 50례의 조기성적

이상권, 송명근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배경 및 목적** : 본원에서 1992년 1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시행한 심장이식 50례에 대한 조기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 \_ 수혜자의 평균연령은  $38.7 \pm 12.9$ 세, 공여자의 평균연령은  $26.9 \pm 8.3$ 세였고, 수혜자의 성별은 남자 42명 여자 8명 공여자는 남자 41명 여자 9명이었다. 수혜자의 원인질환은 확장성 심근질환이 46례, 허혈성 심근질환이 4례였다. 수혜자와 공여자의 성별은 일치된경우가 40례[남 36, 여 4]였고, 여성의 심장을 공여받은 남성이 6례, 남성의 심장을 이식받은 여성이 4례였다. 수혜자와 공여자간의 혈액형은 일치한 경우가 37례, 적합한 경우가 13례였다. 조직적합이식항원 유전자좌는 1개 유전자좌에서 일치한 경우가 21례, 2개좌의 일치가 6례, 3개좌의 일치가 3례, 불일치한 경우가 6례였다. 조직적합이식항원[HLA]교차반응검사에서 2-레에서 warm B 세포에 양성, 1레에서 T세포와 B세포에 양성을 보였다.

**결과** : \_ 수술시 심허혈시간은  $86.8 \pm 14.7$ 분이었고, 술 후 호흡보조와 기도삽관은  $21.1 \pm 1.2$ 시간동안 필요하였으며, 출혈량은  $2008 \pm 323$  cc였고, 술 후 출혈로 7례의 재개흉이 있었다 술 후 부정맥은 1레에서 완전방실차단으로 VVI type 영구심박동을 시행중인 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으로 극복 가능하였다. 술 후 4레에서 심낭액에 의해 심낭절개술이 필요하였으며, 1레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면역억제제는 cyclosporin, immuran, prednisolone을 기본적으로 유지시켰으며, 필요에 따라 cytoxan, MMF도 대치하였다. 동종이식 급성 거부반응 평균 술 후  $26.4 \pm 3.8$ 일에 발견되었고[ $3.3 \pm 2.1$ 회], Grade I의 거부반응은 평균  $2.1 \pm 1.3$ 회, Grade II이상의 거부반응은  $1.3 \pm 1.3$ 회 발생하였으며, 이중 치료가 요구되는 횟수는 평균  $0.7 \pm 0.3$ 회였다. 급성 체액성 거부반응은 1레에서 발생하였다. 술 전후의 심실구혈율은 술전  $19.1 \pm 5.2\%$ , 술 후  $62.0 \pm 4.3\%$ 으로 호전되었으며, NYHA Class  $3.2 \pm 0.2$ 에서 NYHA Class  $1.2 \pm 0.3$ 으로 호전되었다. 술 후 1년이상 경과된 33레에서 관상동맥촬영술을 시행하였고, 2레에서 협착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자살과 폐혈증으로 인한 2례의 사망 [4 %]을 제외한 48명[96 %]이 현재 추적관찰중이다.

**결론** : \_ 심장이식술은 말기 심장질환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책임저자:송명근(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발표자:이상권(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